

보도시점

2026. 9. 1.(화) 11:00

2026. 9. 2.(수) 조간

배포

2026. 9. 1.(화) 06:00

희망의 농촌 공간, 국민 아이디어로 그린다. 2026년 농촌 계획·건축 대전 수상작 발표

- 총 54점 선정, 계획대전 대상(장관상)은 ‘풀무 : 삶에 바람을 불어넣다’, 건축대전 대상은 ‘실로 엮인 하루’가 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주제로 진행된 「제24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21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수상작 54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과 건축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건축대전」을 매년 개최해 왔으며, 각각 24회와 21회를 맞았다.

올해 「농촌계획대전」은 '24.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된 이후 농촌특화지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 조성 전략을 공모하였으며, 총 77건이 접수되어 2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은 「풀무:삶에 바람을 불어넣다」가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입선 20점이 선정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풀무:삶에 바람을 불어넣다」는 홍성군 홍동면을 대상으로 삼교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쉼터(경관농업지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쉼터(농촌마을보호지구), 오리 농업을 내세운 일터(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하는 농촌 공간 모델을 제안하였다. 지역 자연환경과 친환경 농업을 활용하고, 다양한 특화지구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미래상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건축대전」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에 문화·복지·교육·돌봄 등 복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를 공모하였으며, 총 73건이 접수되어 2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은 「실로 엮인 하루」가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입선 20점이 선정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실로 엮인 하루」는 진주시 문산읍의 폐역 및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생산·체험·주거·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서비스 단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생산·체험 시설에는 지역 특산물인 실크산업을 연계하였다. 유희 시설과 지역 특화산업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농촌 마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우수작 14점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특별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9월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수상작을 감상하고 농촌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누리집(www.raise.go.kr)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수상작들이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아름답고 효율적인 농촌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회의 결과물이 농촌공간계획 등 지역개발사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제24회 한국농촌계획대전 개요 및 우수작
2. 제21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개요 및 우수작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책임자	과 장	서정호 (044-201-1541)
		담당자	사무관	성순아 (044-201-1549)
			주무관	최형규 (044-201-1550)

□ 목적

- 농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농촌 공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회복된 농촌 마을의 미래상 홍보

□ 추진경과

- '03년 “제1회 농촌어메니티 마을설계공모전”으로 개최하여 '26년 제24회까지 매년 시행
- '26년 24회까지 2,282팀이 참여하였고, 그 중 765팀이 수상
- '13년(11회)부터 공모전 시행주체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사)농촌계획학회로 이관
- '16년(14회)부터 ‘한국농촌계획대전’으로 명칭 변경

□ 공모전 개요

- 공모명: 제24회 한국농촌계획대전
- 추진기관: 농식품부 주최,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주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후원
- 공모자격: 농어촌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구성
 - * 개인 또는 팀당 1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팀 구성 시 대표자 지정 필요
- 공모주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농촌을 알리고,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촌의 전통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새로운 농촌을 디자인
- 공모대상지: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중) 특화지구 후보군 중 1개소 선택
 - * 경기 이천시 동북부권(부발읍-신둔면-대월면), 강원 횡성군 동부권(안흥면), 충북 음성군 동부권(원남면), 충남 홍성군 남부권(홍동면·장곡면), 전북 남원시 동부권(운봉,인월-산내,아영), 전남 나주시 동부권(남평읍), 경북 문경시 북부권(문경읍·마성면), 경남 합천군 동부권(초계면-적중·덕곡·청덕·쌍책면)

□ 수상작

상격	작품명	대상지	소속	작품설명
대상	풀무 : 삶에 바람을 불어넣다	충남 홍성 남부권	원광대학교 대학원	· 심터(경관농업지구), 세대통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삶터(농촌마을보호지구), 친환경 농업을 내세운 일터(농촌융복합 산업지구)를 조성
최우수상	삿갓배미, 살려배미	전북 남원 동부권	원광대학교	· 400년된 다랑이논을 활용, 전통 수리 체계 보전,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등을 제안
	팔의 반란: RED프로젝트	강원 횡성 동부권	강원대학교	· 안홍진빵의 '팔'을 지역산업과 공간재생의 주제로 생산·소비·체류·치유 공간 제안
우수상	HongDong Link : 홍동 2.0	충남 홍성 남부권	세종대학교 등	· 홍동면의 자원들을 연결해 지역 전체가 함께 작동하는 네트워크형 농촌 재생 계획 제안
	남원의 낙(樂)원(園)	전북 남원 동부권	강남대학교	· 스마트팜, 빈집활용, 수변힐링공간 등을 연계해 주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농촌 제안
	문경 자생(自生), 스스로 일어서다	경북 문경 북부권	강남대학교	· '풍요로운 낙원, 살기좋은 낙원, 흥이나는 낙원' 전략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정주 기반, 관광·문화 기능 강화
	농맥(農脈), 이어가는 합천	경남 합천 동부권	경상국립대. 계명대학교	· '고이지 않는 일상, 끊기지 않는 공간, 돌아오는 관계'를 전략으로 생활서비스와 공간관리 체계 연결

□ 대상 사진 ※ 풀무 : 삶에 바람을 불어넣다 마스터플랜



□ 목적

- 농촌 공간조성 및 지역개발에 적용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하여 농촌 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모색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농촌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기회로 활용

□ 추진경과

- '06년 (사)한국농촌건축학회 발의로 '제1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하여 '26년까지 제21회까지 매년 시행
 - 대학생 등 아마추어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건축부문 공모로 출발
- '26년 21회까지 3,208팀 참여하였고, 그 중 817팀이 수상

□ 공모전 개요

- 공모명 : 제21회 한국농촌건축대전
- 추진기관 : 농식품부 주최,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주관
- 공모자격 : 건축, 도시, 환경 등을 전공하는 학생 및 일반인
 -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구성
 - * 개인 또는 팀당 1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팀 구성 시 대표자 지정해야 함.
- 공모주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를 농촌지역 문화·복지·교육·돌봄 등 복합 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 공모대상지: 5개 대상지 중 1개소 선택
 - *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남도 진주시, 전라남도 영광군

□ 우수작

상격	작품명	대상지	소속	작품설명
대상	실로 엮인 하루	경남 진주	대구가톨릭대학교	· 폐역 및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특산물인 실크 산업을 연계
최우수상	다시 머무는 나루	충북 단양	남서울대학교	· 로컬마켓, 청년 창업랩, 공방 등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제안
	별곡리 별나루	충북 단양	한경국립대학교	· 별곡리에 집중된 관광·생활 인프라를 행정복지센터까지 확장하여 배후마을의 생활거점까지 잇는 지역생활 네트워크 제안
우수상	문산 이음마당	경남 진주	서울대학교	· 이음마당, 어린이마당, 장터마당 등 폐역사공원의 철길 공간을 자연스럽게 겹치도록 동선계획
	아우라지	충북 단양	동명대학교	· 세대간 통합을 위해 스튜디오, 북카페, 어울 마당을 도입
	우연커뮤니티센터	강원 횡성	한경국립대학교	· 기존 마을 골목길처럼 스킵플로어, 중정 등을 계획해 일상 속 우연한 만남이 지속적인 교류의 장으로 이어지도록 농촌거점 공간 제안
	우향의 처마	강원 횡성	성균대학교	· 처마 아래 장터, 마을주방, 온실 등을 조성하여 한 지붕 밑 공동체 회복공간 제안

□ 대상 사진 ※ 실로 엮인 하루 1층 평면도



12. 실크제작 및 청년제작 스튜디오



7. 귀촌농업교실



4. 마을도서관